

을지문덕[乙支文德]

살수(薩水)에 수(隋)를 침몰시킨다



을지문덕 표준영정

/ 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을지문덕(乙支文德, ?~?)은 고구려(高句麗)와 수(隋)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활약한 고구려 장수이다. 을지문덕은 612년(영양왕 23) 수의 2차 침공 때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여 수의 30만에 달하는 별동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을 뿐 아니라, 후퇴하는 적군을 살수(薩水, 지금의 청천강)에서 전멸시켜 고구려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 살수대첩(薩水大捷)으로 고구려는 수의 침략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고, 수는 이후 몰락한다.

2 을지문덕은 누구인가

을지문덕(乙支文德)은 고구려 영양왕대(嬰陽王代, 재위 590~618) 활약한 장수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그 활약이 전한다. [관련사료](#) 기록에는 그가 침략하면서도 날쌔고 지략과 술수가 뛰어났고, 글을 잘 지었다는 평가만 전하고, 가계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그의 이름이 을지문덕(尉支文德)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사료](#) 이 을지(尉支)를 선비족(鮮卑族) 계통의 성씨인 을지(尉遲)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를 선비족 출신의 귀화인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여수장우 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을 짓는 등 한문학에 능숙한 것에 착안하여, 그를 낙랑군(樂浪郡)이나 대방군(帶方郡) 지역 토착 호족세력(豪族勢力) 출신으로 이때에 새롭게 등장한 신진 귀족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성이 '을지'가 아니라 고국천왕대(故國川王代, 재위 179~197)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친 을파소(乙巴素)와 같은 '을'로 파악하거나, 아예 '을지'가 성이 아니라 고구려 관등 중 하나인 '우태(于台)'와 같이 연장자나 가부장을 뜻하는 존칭으로 이해하고, 순수 고구려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상의 주장들은 모두 정황상 추정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한편 조선 후기 문신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애국 명장을 전기로 엮은 책인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에 그가 '평양 석다산(石多山)' 사람이라고 밝힌 것이 있다. 조선 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을지문덕을 평양부(平壤府)의 인물로 적고 있다. [관련사료](#) 그러나 이들 역시 후대의 기록이기도 하거니와, 별도의